

미국 기업지배구조 조사 및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참가

-하준 부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
1. 출장 개요

- (1) 출장자 : 하준 부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- (2) 출장기간 : 2011년 10월 24일(월) ~ 10월 29일(토)
- (3) 출장지역 : 미국 워싱턴 DC
- (4) 출장목적
 - 글로벌인사이트(GS)에서 주최하는 세계경제전망(World Economic Outlook) 컨퍼런스의 참가.
 - IHS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
 - 이번 주제는 재정위기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성장의 재점화 방안 (Recovery Stalled: Reinvigorating Growth While Tackling Debt)을

모색하는 것.

-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과정에서 각국들은 확대된 재정적자와 통화량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내수 및 교역의 축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,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겠지만 결국 경제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조정, 집중하고 기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향후 재정악화 및 부채증가 하에서 정부의 거시정책과 기업의 미시적 사업다각화 및 신성장부문 발굴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현대자동차 연구소와의 공동 방문 및 애널리스트 면담을 통해 향후 동 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
- 워싱턴 DC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, 경쟁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향후 연구에 반영.

(5) 방문기관

- 미국 (워싱턴 DC)
 - IHS Global Insight가 주최하는 **Fall 2011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**
 - American University

(6) 세부 출장일정

	소재지	방문기관
10.24(월)	서울 출발 → 미국/ 워싱턴 DC 도착	
10.25(화)	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참석	
10.26(수)	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참석	
10.27(목)	자료 정리 및 현대차연구소 관계자와 회의	
10.28(금)	American University 방문,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자 면담, 귀국(워싱턴 출발)	
10.29(토)	한국 도착	

2. 출장 내용

(1) 컨퍼런스 개요 및 주요 내용 : Tuesday, Oct 25, 2011

○ IHS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

Recovery Stalled: Reinvigorating Growth While Tackling Debt

○ 1세션:

- Global Recovery Stalled: Reinvigorating Growth While Tackling Debt (Nariman Behraves, Chief Economist, IHS)
- The US Economy: Does the Recovery Still Have a Pulse? (Nigel Gault, Chief U.S. Economist, IHS Global Insight)

○ 2세션:

- Politics, Policy, and the U.S. Economy
(Dan Balz, Chief Correspondent, The Washington Post)
(David Wessel, Economics Editor, The Wall Street Journal)
- European Debt Crisis Resolution: Impacts and Implications
(Jan Randolph, Director of Sovereign Risk, Global Insight)
(Sebastian Mallaby, Director of the Maurice R. Greenberg)

- 3세션: Global Energy: Will a Supply Surge Lower Oil Prices?
(Jim Burkhard, Managing Director, Global Oil Group)
- 전반적으로 유럽발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과급효과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
 - 유럽의 sovereign debt problems는 미국과 달리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
 - 남부 유럽은 경쟁력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, Eurozone의 내재된 문제는 구성국가들이 완전한 주권 국가들(sovereign states)도 아니고 연방의 일원(members of a federation)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
⇒ 캘리포니아가 그리스보다 훨씬 나은 이유!
 -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three D에 매몰되어 있는 점
: Denial, Delay, and Dithering
 - 미국의 경우는 내년 2012' 대선을 앞두고 양당간 정파적 이해가 지배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및 정책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

(2) 컨퍼런스 개요 및 주요 내용 : Wednesday, Oct 26, 2011

- 1세션:
 - The Challenges Facing Latin America
 - * Brazil: Short-term Challenges and Long-term Issues
(Rafael Amiel, Director, Latin America Economics, IHS)
 - * Eclipsed by the BRICs—Will Mexico Reach Its Potential?
(Sara Johnson, Senior Director, Global Economics, IHS)
 - Emerging Asia Luck or Strategy?
Explaining Indonesia's Recent Economic Success
(Simona Mocuta, Director, Asia-Pacific Economics, IHS)

- 2세션: The Realities of the Asian Economy
 - The China Property Market
(Nicholas Lardy, Anthony M. Solomon Senior Fellow)
 - Productivity and Growth Potential in China and India
(Susan M. Collins, Gerald R. Ford School of Public Policy)

Eco Keynote:

Policy Challenges on Balancing Growth and Reducing Debt
(Peter R. Orszag, Vice Chairman, Citigroup)

- 3세션: The Economic Realities for Industry
 - Mark Eramo, CMAI - Chemicals Sector
 - G. Magliano, Senior Principal Economist - Automotive Sector
 - Karen Blanford, Senior Manager - Construction Sector

(3)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(G. Magliano) 와의 인터뷰

- 인터뷰 내용은 [첨부] 참고
- 현대자동차 연구소는 올 봄의 conference(영국 런던에서 개최)에도 참가했고,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data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.
 - 동 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자료공유 및 정보교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
 - 현대 자동차 연구소의 참가자(이보성 부장, 김상윤 사원)와의 대화를 통해 자동차연구소가 최근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종합연구소인 산업연구원(KIET)와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

(4) American University Kogod school of Business 김봉환 교수 인터뷰

- 미국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가 억제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및 경쟁법 분야의 관심이 학교나 연구소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고 함.
- 그러나, 기관들 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는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함
- DC 내에도 조지타운대학, 조지와싱턴대학, 하워드대학, 아메리칸대학 등 여러 학교가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세미나와 전문가들을 접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함

(첨부: 현대차연구소와 공동인터뷰)

Global Insight 자동차 전문가 : George M. Magliano

- 최근 美 자동차 시장은 고용 등 실물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, 대기수요 형성 등으로 판매량 증가
- 올해는 1,250만 대 예상, 2012년에는 소폭 증가한 1,320만 대 전망

(질문) 올해와 내년 미국 자동차 시장 전망은?

- (답) - 미 Light Vehicle 시장 판매량은 2011년 1,250만대로 예상하고 있으며, 판매 호조세가 내년에도 지속되어 2012년에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1,320만 대 예상
- 3개월 전 내년 판매량을 1,470만대로 전망했으나 이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,320만대로 하향 조정

(질문) 소형차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, 과연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?

- (답) - Smart와 같은 초소형 차량을 비롯한 소형차 판매 증가추세는 최소 2015-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정부의 연비규제 강화, 과거에 비해 향상된 성능 및 커진 차체

등이 소형차 구매요인으로 작용

(질문) 생산시설 복구에 따른 공급망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본업체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?

(답) - 작년 Toyota 사태로 일본업체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젊은 구매층이 이탈

- 금년에는 엔고 지속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주원인이며
혼다 civic, 도요타 캠리 등 일부 모델의 성능 개선 미흡 등도
일본업체 부진 원인으로 작용

(질문) 미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 판매량 증가 원인은?

(답) - 대기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, 경제 상황만으로는 자동차 판매 추세를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

- 베이비붐 세대들의 구매 수요도 최근 미 자동차 판매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